

## 『傷寒論』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白虎湯 투여 후 호전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증례 1례

박서연\*

대한상한금궤의학회 학술교육연구위원회

### A Case Report of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treated by Baekh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eo-yeon Park\*

78, Yangil-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port the improvement in a patient with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 treated with herbal medication based on the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Methods:** According to the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Guorem-byung number 350 provision, and took Baekho-tang herbal medication for 15 days. The result of administration was evaluated using the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and the Visual Analog Scale (VAS).

**Results:** After administration of Baekho-tang for 15 days, based on the 350 provision of Baekho-tang diagnosed according to the *Shanghanlun* provisions, the DHI score decreased from 74 to 16 and the VAS score decreased from 10 to 1.

**Conclusions:** The patient recovered from symptoms of BPPV. This case report suggests that the words ‘滑,’ ‘厥,’ ‘裏’ on the 350 provision of *Shanghanlun* mean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uses of BPPV in this case.

**Keyword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Dizziness,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Baekho-tang(白虎湯), *Shanghanlun*

\* Corresponding author : Seo-Yeon Park E-mail : startnowyoni@naver.com

· Received : 2020/12/10 · Revised : 20/12/31 · Accepted : 20/12/31

## 서론

어지림(眩氣, dizziness)은 공간지남력의 장애로 발생하는 증상을 말하며, 넓은 범위로 현훈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sup>1)</sup> 현훈(眩暈, vertigo)이란 내이의 이상으로 인한 말초성의 어지러움으로 진성 현훈과 가성현훈으로 구분하며, 발생부위에 따라 이성현훈, 비이성현훈으로, 발현양상에 따라 발작성 현훈, 지속성 현훈, 체위변환성 현훈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sup>2)</sup>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은 두위에 따라 발작성으로 발생하는 현훈과 안진이 특징으로, 주로 몸을 돌려 누울 때나 벌떡 일어날 때, 위를 올려다 볼 때 등과 같이 머리 위치의 빠른 변화에 의해 유발된다.<sup>3)</sup>

기존의 BPPV에 관한 연구들은 한약 외에 수기법, 침 혹은 약침 치료가 병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약 치료로는 현훈에 대한 痰飲변증에 따른 半夏白朮天麻湯, 澤瀉湯, 虛證 변증에 따른 滋陰健脾湯 등이 많이 처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4)</sup>

한편, 『傷寒論』은 기존에 外感熱病疾患을 치료하는 서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sup>5)</sup> 등이 辨病診斷體系를 제안하였고 노<sup>6)</sup> 등이 고문자적 해석 방식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진단체계와 해석방식으로 다양한 질환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에 대한 고문자적 해석 방식에 근거하여 辨病診斷體系를 통해 BPPV를 진단받은 후 내원한 환자에게 白朮湯을 투여하고 한약 단독 치료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증례

### 1. 환자 기본정보

여성 / 64세 / 기혼 / 주부

2. 주소증(c/c) :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3. 발병일(o/s) : 2020년 4월 초

### 4. 현병력(history) :

1) 2020년 4월 초 상기 c/c 발생하여 광주 00병원 OS통해 BPPV 진단 (Brain CT 상 이상 별무) 받은 후 OPD 통해 내원

2) 앉았다 일어설 때 앞이 빙글빙글 돌

3) 누웠다가 앉거나, 일어설 때 앞이 빙글빙글 돌아서 한 번에 동작을 이어갈 수 없음

4) 토하고 울렁거리는 증상

5. 가족력 : 없음

6. 과거력 : HTN(-) DM(-)

2017년 위 선종 op 하심

2020년 1월 경 구도와 함께 어지림증

7.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 8. 주요 임상 증상

1) 食慾 : 집에서는 거의 식사 못하고 밖에서는 잘 먹는 편

2) 消化 : 위경련, 작년부터 복통은 동반되지 않음

3) 口部 : 구강 및 입 주변부 건조, 구순염 쉽게 발생

4) 汗出 : 별무

5) 大便: 1-2회/일, 생김치 등 음식 섭취 시 설사

6) 小便: 6-7회/일

7) 寒熱: 추위 타지만 열감 호소

8) 頭面: 안구 건조 및 피로감, 만성적 비염으로 우측 코 막힘

9) 呼吸: 별무

10) 胸部: 별무

11) 腹部: 별무

12) 睡眠: 10:30pm 경 - 6-6:30am경 기상

13) 身體: 몸에 근력이 없는 느낌

14) 性慾: 별무

15) 스트레스 대응방식: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와 답답함을 느낌

16) 婦人: 출산 2회, 월경 중지 상태

본 증례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을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 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 9.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 1)

(1) 臨床所見

① 4D 영화를 보며 의자가 흔들리고 화면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Category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slippery pulse	滑脈	Athletic problem concerned with muscles not to be tightened
reversal of qi	厥	Concentration
interior	裏	Problems concerned with group members living together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such as slippery pulse, reverse of qi, and interior.

이 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증상 발생, 이전에도 같은 경과로 어지럼증 발생

② 병뚜껑을 따지 못할 정도로 손목 관절 부위와 척추 관절의 중심을 잡아줄 근력이 없는 느낌을 호소함

③ 같은 구역에 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가 반복 지속되면서 신체 제반 증상들이 발생하고 악화됨

(2) 辨病診斷: 厥陰病

① 厥陰之爲病, 氣上撞心, 心中疼熱: 정신적, 신체적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하며, 심리적인 답답함과 스트레스 상황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과

② 飢而不欲食, 食則吐: 소화기계 문제가 증상 발생에 관계되는 경과

이를 근거로 하여 厥陰病으로 진단하였다.

(3) 條文診斷: ⑮350. 傷寒, 脉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

① 脉滑而厥者: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화면에 눈을 집중하는 활동을 하던 중 증상이 발생함

② 裏有熱也: 같은 구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로 인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특히 함께 생활하는 와중에 신체 제반 증상이 발현되거나 심해짐

위 진단내용을 근거로 하여 권음병 350번 白虎湯 조문을 진단(Table 1)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어지럼 척도로는 Dizziness Handicap Inventory(DHI),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VADL), Vertigo Symptom Scale(VSS) 등이 특이적으로 활용된다.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는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어지럼에 의한 일상 생활 장애를 조사한 최초의 자기평가식 척도이다.<sup>7)</sup> 다른 언어로 번역해도 신뢰도가 높고 문항의 언어적, 문화적 표현 차이를 고려한 한국어 표준화 연구<sup>8)</sup>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치료 평가에 유의미한 지표라 판단하였다. 기능적, 감정적, 신체적 영역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3단계 척도에 따라 4, 2, 0 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합(0~100점)으로 장애 정도를 정량화한다. (Index 1)

또한 제반 신체 상태를 반영하여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호전 정도를 비특이적 평가 도구인 Visual Analogue Scale(VAS)로 평가하였다. 초진 당시 아주 심한 불편감을 나타내는 상태를 10, 불편이 전혀 없는 상태를 0으로 표시하였다.

10.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白虎湯을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27일 까지 17일의 진료 기간 중 15일 분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탕전 방법은 아래 (Table 2) 과 같다.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Baekho-tang<sup>9)</sup>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石膏	Gypsum Fibrosum	48
知母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18
粳米	Oryza sativa	11
甘草	Glycyrrhiza uralensis Fisch	6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15 days.

2) 생활 지도

심리적, 신체적으로 집중하는 상태, 특히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상황을 피하고, 관계에 문제를 겪고 있는 구성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지도함.

11.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20년 5월 11일 - 5월 27일

2) 경과 (Figure 1, 2, 3 참고)

(1) 초진일 (2020년 5월 11일) : 앉았다 일어설 때, 누웠다가 앉을 때, 누웠다가 일어설 때 회전성 어지러움이 매우 심하고 눈 앞이 빙글빙글 돌. 한 번에 체위 변환 불가.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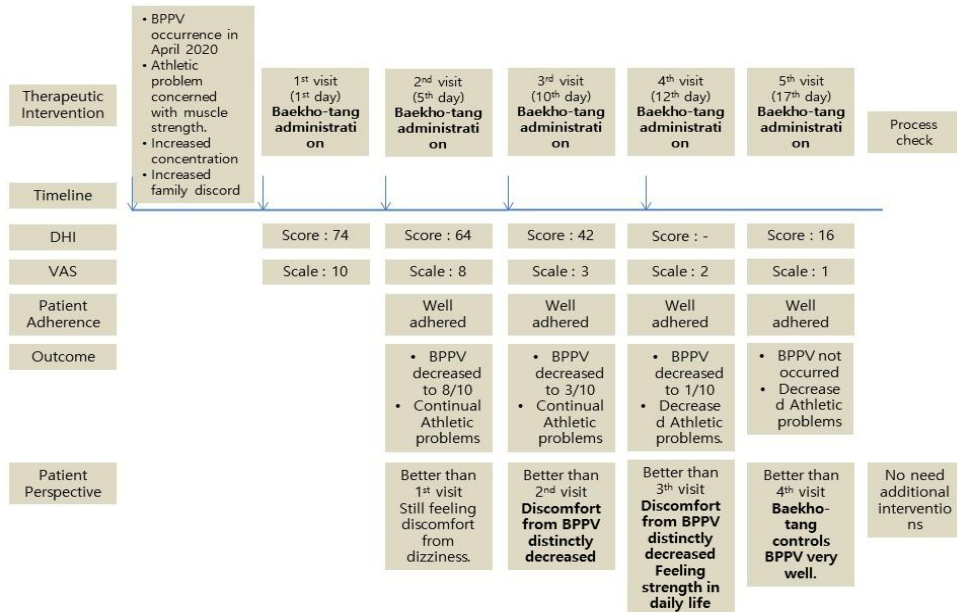
· DHI : 74점    · VAS : 10점

(2) 2020년 5월 15일 재진 (白虎湯 복용 4 일)

하늘을 보며 시선을 고정할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은 호전 중. 누웠다가 앉을 때 등 체위 변환 시 어지러움 호소함.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음.

· DHI : 64점    · VAS : 8점



\* This figure's category that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DHI, VAS),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Figure 1.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This figure's categories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DHI, VAS),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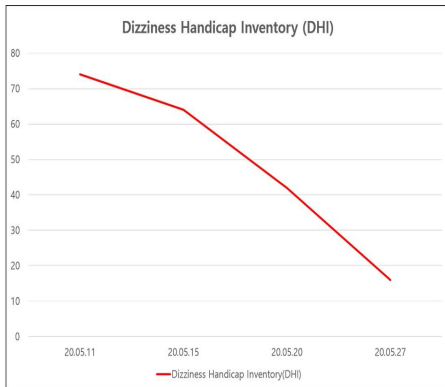


Figure 2.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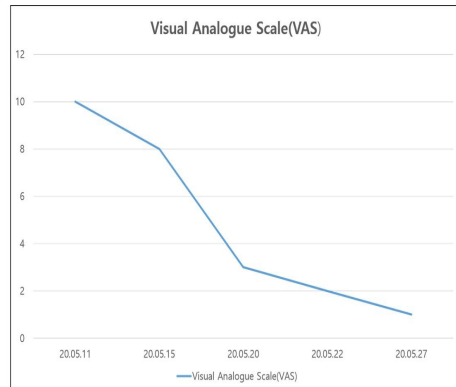


Figure 3. Visual Analogue Scale(VAS) about discomfort from BPPV

(3) 2020년 5월 20일 재진 (白虎湯 복용 9 일)

체위 변환 시 어지러운 증상 확연하게 감소하며 빙글빙글 도는 것 멈춤.

감기 기운과 함께 두통 발생해 불안했음.  
병뚜껑을 따는 동작에 힘이 안 들어감.

· DHI : 42점 · VAS : 3점

(4) 2020년 5월 22일 재진 (白虎湯 복용 11 일)

어지러운 증상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로 유지 중이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짐. 열감이 느껴지지 않았음.

· DHI : 측정하지 않음 · VAS : 2점

(5) 2020년 5월 27일 재진

복약을 마친 후에도 체위 변환 시에 어지러운 증상 재발되지 않음.

힘을 주어 동작을 시행할 때 전체적으로 더 편해짐.

· DHI : 16점 · VAS : 1점

(6) 2020년 7월 17일 재진

복약 마친 후 체위 변환 시에 어지러운 증상 발생한 적 없음.

위와 같은 치료 경과를 CARE guideline에 따라 연대표로 작성하면 Figure 1과 같다.

## 고 찰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은 말초성 현훈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 자세 변환 시

유발되는 현훈과 안진 양상이 특징이다. 양성 체위성 현훈은 타원낭의 평형반에 위치한 이석(otolith)이 변성되어 부스러기가 반고리관에 들어가거나, 팽대마루에 달라붙으면서 발생한다.<sup>10)</sup> 증상은 특정한 머리의 위치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된다. 아침에 심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떠다니는 느낌, 구역감이 동반될 수 있다.

BPPV의 치료는 양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Semont 결석유리술, Epley 치환술, Brandt-Daroff 습관화 운동, Forced prolonged position 치료법, Lempert 방법, Barbecue rotation, Appiani 방법 등 다양한 체위 변환 및 운동 기법이 제안된다. 경과가 심한 경우 단신경 절제술, 후반고리관 폐쇄법 등 수술적인 치료법이 활용된다.<sup>11)</sup>

현훈(眩暈, vertigo)은 넓은 범위의 어지럼증(銜氣, dizziness)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이다. 한의학에서 眩暈은 하나의 자각증상으로 ‘眩’은 目眩으로 眼花의 증상 眼前發黑, 視物模糊를 뜻하고, ‘暈’은 ‘頭暈’, 즉 자신 혹은 외계사물이 도는 것 같아 바로 서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眩과 暈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므로 ‘眩暈’이라 칭한다. 여기에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수반되기도 하므로 ‘眩冒’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현훈의 발병원인은 風, 火, 痰, 虛 로 나뉜다. 증상과 병기에 따라 風暈, 熱暈, 痰暈, 氣暈, 虛暈, 濕暈의 六種眩暈 등으로 분류된다. 임상에서 관찰되는 변증 양상은 虛證이나 本虛標實證이 많다.<sup>3)</sup>

이와 같은 변증 진단에 따라 김<sup>12)</sup> 등의 眩暈 치험 2례, 구<sup>13)</sup> 등의 半夏白朮天馬湯加味方을 이용한 眩暈 치험 2례 등 다양한 현훈 양상에 대한 다수의 증례 연구가 보고되

어 있으며, 사상체질 진단을 통해 소양인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 荊防地黃湯을 활용하거나 태음인 太陰調胃湯 과 調胃升清湯을 활용한 연구 등 다수의 증례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sup>14)~17)</sup>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따른 연구는 최<sup>18)</sup>의 白虎湯을 활용한 현훈 증례 연구가 1건 보고되어 있다. 현훈의 다양한 양상에 따른 다수의 증례 및 치료 결과가 보고되어 있지만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근거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을 치료한 보고는 본 증례가 처음이다.

저자는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와 고문자적 해석 방식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였다. 이는 환자의 병력청취 과정에서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제강 및 조문을 선택하며, 『傷寒論』이 형성된 2000년 전의 고문자적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위 증례의 환자는 주소증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지속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氣上撞心)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심한 소화기 문제가 병발되었다.(飢而不欲食, 食則吐) 환자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몰입하고(厥) 있었다. 이와 같은 증상 발병의 신체적, 심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환자를 厥陰病으로 진단하였다.

이와 같이 환자에게 BPPV가 발병하게 된 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병력 청취를 통해, 고문자적 해석 방식을 바탕으로 진단하여 발병과정에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350條의 脉滑而厥 裏有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가 병발 전부터 겪고 있던 스트레스 상황은 같은 구역에서 생활하는 사람과의 불화로 발생하는(裏) 것이었다. 더불어 환자는 중심이 잡히지 않는 느낌과 함께 병뚜껑을 딸 수 없을 정도로 손목부터 근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양상(滑)을 호소했다. 이후 온몸이 흔들리는 환경에서 흔들리는 화면에 집중을 하는 상황(厥)에서 현훈이 발생했다. 환자의 신체 제반 상황은 불화가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더욱 악화되고 구역을 벗어날 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裏有熱)

滑의 고문자 형태를 살펴보면(Figure 4) 물을 의미하는 글자(水)와 뼈를 의미하는 글자(骨)가 합쳐져 있다. 단단한 뼈 위에 흐르는 물이 합쳐진 자형으로 ‘미끄럽다, 부드럽다’를 의미한다.



Figure 4. image of an Ancient Chinese, meaning slippery

辨病診斷體系에서는 조문에 쓰인 모든 단어의 형태 분석을 통해 병리적인 의미로 가정하여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滑’이란 정상 연부조직이 골격에 단단히 부착된 상태로 운동하는데 비해, 병리적 상황에서는 마치 뼈 위에 물이 흐르듯이 미끄러지며 작용하여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골격을 운동시키지 못하는 운동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임상적으로는 척추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기능 저하로 운동 시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병뚜껑을 돌리고자 힘을 가해도 운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양상 등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滑’은 근육에 힘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

해 결국 골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운동 장애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론하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기능 저하는 체위 혹은 두위 변화 시 현훈이 반복되는 위 환자의 현훈 양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배경상태가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글자 裏는 오래 전부터 글자 表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로서 해석되어 왔다. 고문자 형태를 살펴보면(Figure 5) ‘마을, 행정 구역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里)와 ‘옷, 행하다, 실천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衣)가 합쳐진 모양이다. 傷寒論의 단어는 병리적인 단어로 판단하므로 이를 ‘내부’의 의미가 아니라 거주하는 구역,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역할 문제로 인한 병리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가 겪어온 심리적인 문제를 잘 반영하는 글자로, 환자의 신체 제반 상황과 주소를 유발하는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함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350번 조문으로 진단하였다.



Figure 5. image of an Ancient Chinese, meaning inside

고문자적 해석은 저술 시기에 사용되던 글자의 의미를 밝혀 傷寒論 본래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려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저술된 시기 통용 의미와 임상에서 실제 관찰되는 현상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심

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傷寒論 白虎湯 단독 투여만으로 환자의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근거로 환자를 厥陰病으로 진단하고, 환자의 병발 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고문자적 해석방식에 따라 진단하였다. ‘滑’, ‘厥’을 신체적인 원인으로 해석하고 ‘裏’를 심리적 원인으로 해석하고 진단하여 조문에 의거해 白虎湯을 투여하여 병적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BPPV 진단 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병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환자의 진술에 의존한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므로 평가 도구에 대한 보완을 통해 객관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일증례 보고에 불과하므로 향후 고문자적 고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현성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조문의 해석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BPPV)을 진단 받고 내원한 환자에게 고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白虎湯을 투여하여 다음 결론을 얻었다.

1.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BPPV) 환자에게 白虎湯을 15일 투약 후 DHI 74점에서 16점, VAS 10에서 1로 개선되었다.
2. 『傷寒論』 350條에서 滑, 厥, 裏를 환



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원인과 관계된 병리적인 단어로 추론하고 고문자적으로 해석하여 白虎湯을 투여함으로써 한의학적 임상진단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Reference

1. Park JH. Positional dizziness and vertigo without nystagmus and orthostatic hypotension.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2016 ; 15(4) : 107-111.
2.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Globooks. 2019 : 33-5.
3. Neuropsychiatry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ational Colleges of Korean Medicine, 『Oriental Neuropsychiatry』, Maver. 2018 : 282-4, 277-9.
4. Jung JS et al. Korean Medicine interventions for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 A systematic review of clinical studies published in Korea. J. Int. Korean Med. 2017 ; 38(4) : 479-490.
5. Lim JE, Lee SJ.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 ; 5(1) : 1-17.
6. Rho YB, Lee JH, Ha HI. The fundamental meaning of Mai and Shanghanlun provisions based on paleography. Seoul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7(1) : 1-14.
7. Jacobson GP, Newman CW. The development of the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Arch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90 ; 116 : 424-7.
8. Han GC et al. The study of standardization for a Korean adaptation of self-report measures of dizziness.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Med. 2004 ; 3(2) : 307-325.
9. Lee SI, Cho HR. The comparison of the Shanghanlun.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206.
10. Kim J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Journal of Korean Acad Fam Med. 2002 ; 23(4) : 430-9.
11. Byun JY, Ryu EW. Diagnosis and treatment of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2010 ; 9 : 55-64.
12. Kim KS et al. Two clinical cases of vertigo. J of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5 ; 18(3) : 148-157.
13. Koo JS, Kim BH, Seo BI. A clinical study of two patients on vertigo with Banhabaekchulchonma-tang gamibang. Kor. J. Herbol. 2015 ; 30(5) : 1-6.
14. Kim YH et al. A case study about Soyangin patient suffering from dizziness, treated with Soyangin 'Exterior Cold Disease'. J Sasang Constitut Med. 2007 ; 19(1) : 186-192.
15. Go GY, Jang MH, Kim KY, Ahn TW. A case study about Soyangin cerebellar atrophy patient suffering from dizziness improved by Hyeungbangjihwa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13 ; 25(3) : 233-242.
16. Cho IY et al. A case study of a Soyangin suffering Chest Knotting Syndrome who took Hyeungbangsabaek-san and Hyungbangdojeock-san. Korean J Orient. int. Med. 2007 ; 28(3) : 615-623.

17. Lee JH, Seo EH, Ha JH, Cho JS, Goo DM. Three cases of Taeumin patients suffering from positional vertigo. J Sasang Constitut Med. 2007 ; 19(1) : 193-202.
18. Chio WY. A case of a patient with dizziness diagnosed with Guorem-byeong Baekho-tang.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8 ; 10(1) : 143-152.

## Index 1. K-DHI 설문지

한국어 번역판 어지럼 척도 표준화 연구

**Table 1.** Korean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이 설문지의 목적은 어지럼으로 인한 증상 때문에 당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항상", "가끔", "없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항상	가끔	없다
P1	위를 쳐다보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E2	증상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까?			
F3	증상 때문에 출장 또는 여행에 제한을 받습니까?			
P4	슈퍼마켓이나 시장 통로를 걸어가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F5	증상 때문에 짐자리에 들거나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F6	증상 때문에 외식, 모임참석 등의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까?			
F7	증상 때문에 글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F8	운동, 춤,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몸을 더 움직여야만 하는 일을 할 때 증상이 심해집니까?			
E9	증상 때문에 당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E10	증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P11	머리를 빨리 움직이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F12	증상 때문에 높은 곳을 피합니까?			
P13	잠자리에서 돌아누울 때 증상이 심해집니까?			
F14	증상 때문에 힘든 집안일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E15	증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됩니까?			
F16	증상 때문에 혼자 산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P17	길을 따라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집니까?			
E18	증상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F19	증상 때문에 어두운 밤에 집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렵습니까?			
E20	증상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됩니까?			
E21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장애가 있다고 느낍니까?			
E22	증상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E23	증상 때문에 우울합니까?			
F24	증상 때문에 직장 일이나 집안일에 지장을 받습니까?			
P25	몸을 굽히면 증상이 심해집니까?			